서울대 기술지주, 신한금융과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및 신한퓨처스랩 4기 모집



* 왼쪽부터 박동원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 우영웅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대표이사 박동원) 신한금융그룹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퓨처스랩은 지난 2015년 출범한 국내 금융권 최초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지난 1~3기를 통해 육성한 40개의 국내 기업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약 65억원의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회사는 유망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공동투자 등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서울대 기술지주회사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학내외 유망기업(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과 금융을 융합해 멘토링, 공동투자, 사업화 지원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신한금융은 신한퓨처스랩 4기 육성과정 스타트업(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련 홈페이지 주소: http://www.futureslab.kr)



[끝]